

### 제3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오찬

- 과학자들을 위해 여러 길을 열어놓겠다 -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자리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도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운이 지배한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 대통령이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총리가 과학의 발전상과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상,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간결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이것이 현 과학자들의 위치이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위치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들이 활발해야 활동해야 그 나라가 융성합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돼서 장학증서 주고 같이 희망을 나누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늘이 준 행운입니다. 저도 어지간히 노력은 했지만 언제나 행운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그 행운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뒷바라지 해온 교장선생님과 심사하느라 수고한 심사위원도 치하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은 제가 3번째 주는 상입니다.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상 제도를 만들어 제가 가꾸고 덕을 본 셈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충분히 행운을 누리고 스스로 기뻐하고 공적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기쁜 일을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

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 많은 발명과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명하고 발견하는 것을 보면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정치를 하면서 대강 정치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몇백년 가는데, 자고나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제일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과학영재들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해서 정보교류, 지식축적, 지식활용 등의 방법들이 다 바뀌고 거기에 맞게 사회생활도 바뀌고 법도 바뀝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의 덕을 보고 삽니다. 덕도 보지만 과학기술자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DNA 3차원 구조를 발견했는데 그런 것 자꾸 하면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정치구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더 오래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생각도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치인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정책과 제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지 않으면 과학기술부분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절반이 이공계 즉 자연과학계 출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가 이사 전무 사장 회장도 하는 등 이공계가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50%이상 넘게 갈 것입니다. 사장은 이 자리의 여러분들입니다. 지식을 토대로 발견하고 발명하고 성취를 토대로 기업경영 등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 국가정책도 운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 길을 열어놓게 하겠습니다. 오명 과기부총리가 잘 하고 있고 과기부 정책도 잘 하고 있어서 마음을 폭 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가고 있는데 계속 밍니다. 떠밀고 뛰고 있는데 계속 때립니다. 주마가편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제일 느린가하는 착각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제자리 앉아서 뭉개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다가 한 번씩 문득 문득 새 정보를 보면 우리 한국이 속도가 빠르다 아납니까. 여러분의 기회가 잘 열릴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축하합니다.